

모든 동맹 조직들을 총발동시켜 뜻깊은 올해에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자

청년전위들과 녀맹일군, 녀맹원들의 쫓기모임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들을 철저히 완수하기 위한 청년전위들과 녀맹일군, 녀맹원들의 쫓기모임이 6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청년전위들의 쫓기모임

청년동맹이외국에서 진행된 청년전위들의 쫓기모임에서는 원소년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의 보고에 이어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모동자 조경길,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김경일, 대동강구역청년동맹위원회 1비서 조창일이 결의토론을 하였습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청년동맹과 직맹, 농근맹, 녀맹조직들이 총발동되어 대고조진군으로 전 동맹이 부글부글 끓게 하며 동맹원들 모두가 혁신자, 만리마속도의 창조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청년전위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수령집사로서의 제일결사대, 당의 명령지시를 무조건 끝까지 완수하기 위한 투쟁의 제일기수가 될데 대하여 언급하

고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동지는 실장을 불태우며 나라의 귀중한 자원을 모조리 고갈하고 온 나라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기 위한 산림부구전투에 앞장서며 강하천관리와 도로보수, 환경보호사업에 청춘의 탐과 열정을 다 바쳐나갈것이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들은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높이 청년동맹안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5대 교양에 화력을 집중하여 모든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명장들로 역세게 준비시킬데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청년동맹일군들이 대외의 앞장에서 대충을 이끌어 나가는 기관차가 되고 당의 사상과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서 싸워나갈것이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들은 공업과 농업, 수산업 분야의 청년들이 당의 경제전략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투쟁의 맨 앞장에 서서 당의 과업을 철저히 완수하며 만리마속도의 새로운 영광을 창조할데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그들은 공업과 농업, 수산업 분야의 청년들이 당의 경제전략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투쟁의 맨 앞장에 서서 당의 과업을 철저히 완수하며 만리마속도의 새로운 영광을 창조할데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공업과 농업, 수산업 분야의 청년들이 당의 경제전략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투쟁의 맨 앞장에 서서 당의 과업을 철저히 완수하며 만리마속도의 새로운 영광을 창조할데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청년전위들의 쫓기모임 진행

한몸을 조분처럼 잘그리 불태우며 청년혁명학교 교원이 되어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습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두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신년사사를 높이 받들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고지를 절명하기 위한 총투쟁전에 서 집일성, 김정은청년전위의 기상을 위용을 날짐없이 펼쳐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습니다.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쫓기모임에서는 김정은 녀맹중앙위원회의 위령당의 보고에 이어 녀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손명애, 중구역녀맹위원장 배영숙, 만경대구역 방목1동 녀맹원 현은영이 결의토론을 하였습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신적인 신년사를 받아안은 온 나라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가슴가슴은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르려는 크나큰 민족적정기와 자부심, 끈있는 감각과 확고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전체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새해행군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승려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고 혁명의 전진기를 대변영기로 이끌어갈데 대하여 강조하였습니다.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쫓기모임 진행

까지 좋은 일하기운동을 활발히 벌려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참전격이 아니지 않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습니다.

그들은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이 뜨거운 애국의 한마음으로 혁명기려건설과 국토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에 적극 참가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군중문화체육활동과 대중체육활동을 힘있게 벌리며 인민군대를 신철육의 정으로 원호하고 자녀들을 조국보위초소에 세우는것과 함께 전쟁전쟁들과 영예군인들, 전사자가족들과 후방가족들의 생활을 따스히 돌보아주는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습니다.

그들은 녀맹조직들이 녀맹원대중의 양양된 열의를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더욱 고

조시키기 위한 사상전의 된바람을 일으켜 대고조진군으로 전 동맹이 부글부글 끓어번지게 할데 대하여 강조하였습니다.

【조선중앙통신】



학생소년들의 설맞이 공연 《해님나라 열두달》련일 진행

학생소년들의 설맞이 공연 《해님나라 열두달》이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에서 련일 진행되고있다. 공연장소는 온혜로운 태양의 품속에서 마음껏 재능을 꽃피워가는 세 세대들의 기쁨과 향연에 넘친 공연을 보기 위해 모여온 관람자들이 흥성이 일었다.



학생소년들의 설맞이 공연 《해님나라 열두달》 련일 진행

앞날의 탁구강자들을 키워가는 교육자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학교들에서 체육시설을 원만히 갖추어놓고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과외 체육활동을 다양하게 벌리며 종합적인 체육교육을 실시할데 대하여 강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목표는 높게, 실천은 완강하게

한양시 성원강구역 삼남소학교는 유명한 탁구선수들이 수없이 배출되어 전국에 소문이 자자한 학교이다. 학교의 나이런 탁구소조원들이 최근년간에 이룩한 경기성과는 대단하다. 2015년에 진행된 제41차 정일봉상 전국청소년학생체육경기대회 소학교부문 탁구경기에서 녀자선수들이 우승을 거머쥐는 데 이어 2016년에는 녀자선수들이 단체전에서 우승하여 힘을 들어올렸다. 뿐만아니라 매년경전에서 남, 녀선수들이

후비육성의 지름길-훈련의 과학화

탁구소조지도의 과학화수준을 높여나가는 데 하루빨리 세계 제권을 휩쓸 수 있는 탁구선수부들을 키워낼수 있는 지름길이 있다. 탁구선수부 정색소학교 체육교원 정은옥동무의 경험은 이것을 증명해주고있다. 선수생활을 마치고 대학을 졸업한 그는 탁구선수부팀을 키우는 교육자가 되려는 포부를 안고 자라하여 소학교체육교원이 되었다. 학교에 배치되자마자 탁구소조를 내온 그는 앞선 단위를 따라잡지 시간준비교육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나이런 소조원들의 훈련을 지도하던 과정에 그는 실지 탁구공이 판에서 오가는 시간이 1시간에 불과 18-20분정

평화로운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이밖에도 청진시 신양구역 해안소학교의 탁구소조를 맡고있는 김연희동무는 학생들의 지능을 개발시키기 데 중점을 두고 기초기술을 경기장에서 능동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경기식훈련을 방법론있게 내뒀다. 전과 학교는 이 경기를 통하여 탁구소조원년만이 걸지 않아도 다양한 특기기술을 소유한 선수부들을 키워낼수 있는 단위로 주목되고 있었다. 방의 은정속에 마련된 작지 학교들의 체육소조사업성과는 교육자들에게 크게 알려져있다. 학교체육소조를 맡은 교육자라면 누구나 이룰수 없는 목표에 내세우고 훈련의 과학화를 비약의 보진으로 확고히 품어 쥐고 훈련의 평양향을 아낌없이 바칠 때 체육강국건설의 관철로운 재일은 더욱 앞당겨질 것이다. 본사기자 지혁철

그가 사랑한 노래

평양 학생소년궁전 지도교원이었던 김수경동무

이름을 한평생 찾아 소조실로 데려왔고 때로는 훈련으로 지친 학생들을 등에 업고 멀리 총총한 밤 궁전문을 나서기도 했다. 자기의 밥먹을 통째로 아이들에게 안겨주려는 웃음이 볼만하고 고풍을 달고 미소도 하였던 그는 모음을 아직도 제자들의 기억속에 소중한 간직되어있다. 김수경동무는 학생들을 찾아 떠돌던 해마파리로, 나무뿌리 소나무처럼 키우려고 애썼다. 그는 늘 학생들에게 우리의 나라의 제일 좋은 곳이라며 아이들을 위한 궁전과 야영소들을 세워주고 마음껏 재능을 꽃피우수 있게 해준 고마운 몸이 되어, 하나하나의 선물을 고마운 그 몸을 노래하고 싶어하는 때처럼 총정을 담아야 한다는 데 대하여 자라나고 일깨워주었다.

연을 비롯한 여러 공연무대에서 그가 소조원들과 함께 제일 선함으로 연주하곤 하던

《선생님, 우리 애가 선생님이 수업시간에는 항상 세겜겜에 사쁘를 입으셨다고 하니까 사쁘 한말을 지어주셨다. 최근같이 꼭 불러 읽어보십시오.》... 지난해 1월 김수경동무는 자기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기때 그는 학생들에 대한 바이올린교육에 더욱 정력을 기울였다. 모진 아픔으로 침상에 입어내지 못하는 날에는 그의 집이 소조실로 되곤 하였다. 침상에 누움에도 온몸을 땀으로 적시며 바이올린연주를 지도하는 그 불사신같은 모습을 보이며 안해와 아들은 물론 나이런 학생들도 소조실로 눈을 떴다. 초콜릿을 남는 생을 정그리 데워가던 그 날 김수경동무의 가슴속에서 더욱 밀려들어오듯 흐르는 무엇이 있었는가. 김수경동무의 손끝에서 맑은 학생들의 재능이 솟아나고 있었다. 김수경동무는 자부심 어린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날은 열흘도 못 버티고 세상을 떠났다. 그의 마지막 순간에 그는 학생들에게 이별의 편지를 남겼다. 《선생님, 평시로는 필요없는 것이 있으면 서슴치 말고 부탁하십시오. 학생들때문에 일요일, 평일날 마로 없이 애쓰시는게 우리 학부형들이 무엇인가 도와야 할게 아닙니다.》

탄부들의 사랑받는 직동의 녀인

2.8직동철련관람 로동자 리명실동무는 누가 보건말고, 입아주면말고 깨끗한 평생을 지니고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하고있다. 그녀는 전사한 남편의 몸까지 합쳐 군인들을 위해 철원군의 정을 다하고있다. 명실동무가 기념일 때마다 초소의 병사들에게 따뜻한 현호초와 함께 수심통의 위문편지를 보내주며 그들의 가슴에 사랑하는 고향과 어머니조국을 위해 조국의 방편을 더 굳건히 지켜가도록 애국의 마음을 심어 주었다. 뿐만아니라 만방마에 살고있는 전쟁포병들과 영예군인들의 건강과 생활을 따스히 돌

일요일에 진행될 체육경기

8일(일요일) 오전 평촌거리 풍구경기관에서 압록강 체육단과 기관차체육단사이의 남자풍구 1급 도전경기가 진행된다. 【조선중앙통신】

